12년간 법적 공방 마침표… 어제 명예회복 현판식

‘황룡사 실루엣’ 경주타워 저작권자는 故 유동룡 선생

문화엑스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참석
정부기관 저작권 문제 첫 인정

세계적인 재일 한국인 건축가 고(故) 유동룡 선생(예명 이타미 준)이 황룡사 9층 목탑의 실루엣을 품고 있는 경주타워의 원(原) 디자인 저작권자로 대내외에 선포됐다.

(재)문화엑스포는 17일 오후 1시 30분 건축가 유동룡 선생을 경주타워의 원 디자인 저작권자로서 명예를 회복시키고, 12년간 이어져 온 긴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은 이 지사를 비롯,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경북도 및 경주시 관계자, 유동룡 선생의 장녀 유이화 ITM 건축사무소 소장, 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를 제작한 정다운 감독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타워 앞에서 진행됐다.

이 지사는 ‘경주타워와 건축가 유동룡(ITAMI JUN)’ 현판식을 통해 경주타워의 저작권자가 유동룡 선생임을 명확하게 밝히며 현판식이 열리게 된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 첫번째)는 17일 경주타워와 건축가 유동룡(ITAMI JUN)‘ 현판식을 가진 후 유이화 ITM 건축사무소 소장(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오른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식재산권을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한다”며 “경주타워가 세계적인 건축가 유동룡 선생이 만든 것임을 선포한다. 이로써 해당 명품 건축물로서 각광받고 경주에 관광객이 몰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디자인 표절 등으로 상처 입은 세계적인 건축가의 명예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정부기관이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공모전 당시 유동룡 선생의 출품작은 당선작이 아닌 우수작으로 뽑혔는데 지난 2007년 8월 완공 후 경주타워의 모습이 유동룡 선생이 제출한 설계와 유사하다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후 5년간 계속된 법정공방 끝에 서울고등법원의 선고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 저작권자가 유동룡(이타미 준)임을 명시한 표지석이 2012년 설치됐다. 하지만 경주타워 우측 바닥 구석에 있는 표지석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데다 지난해 9월, 표시문구의 도색까지 벗겨져 유동룡 선생의 유가족은 지난해 9월 ‘성명표시’ 재설치 소송을 진행했다.

故유동룡 선생(이타미 준)

이때 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타워의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한 일련의 내용을 보고받고 원 디자인에 대한 인정과 적극적인 수정조치, 저작권자인 유동룡 선생의 명예회복 등을 지시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이번 현판식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엑스포 측은 바닥에 설치돼있던 표지석을 곧바로 철거하고 유동룡 선생의 유가족과 새로운 현판 제작에 따른 내용 및 디자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런 노력을 보이자 유동룡 선생의 유가족은 ‘성명표시’ 재설치 소송을 2019년 10월 취하했다. 엑스포 측은 유동룡 선생 타계 10주기를 맞는 2021년에는 특별 헌정 미술전 등 추모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경북)=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동네방네

평택·당진항 서부두에 청정 공기숲 조성

평택지방해양수산청
3억 사업비 투입, 해송 172주 식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배후부지내 분진화물(곡물·사료)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최소화기 위해 하수림대를 조성키로 했다.

평택지방 해양수산청은 쾌적하고 청정한 항만환경을 도모코자 ‘평택·당진항 서부두 배후부지 수림대 조성공사(2단계)’공사를 18일 착공한다.

이번 공사는 항만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단계별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 중 하나로서,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부두 배후부지 내 해송 172주를 식재할 예정이다.

/평택(경기)=이보헌 기자 bhlee7777@

여수시, 읍·면·동 비상벨 설치… 악성민원 차단

여수시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민원 부서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27개 읍 면 동에도 설치키로 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민원실 비상벨은 지난해 9월 우선적으로 본청 3개소에 설치하여 경찰서와 합동 대응훈련을 마쳤고, 올해는 민원행정 최일선인 읍면 동 전체 27개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비상벨은 폭행 폭언 등 특이민원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경찰서와 연계된 양방향 시스템이다.

/전남=김용확 기자 jijac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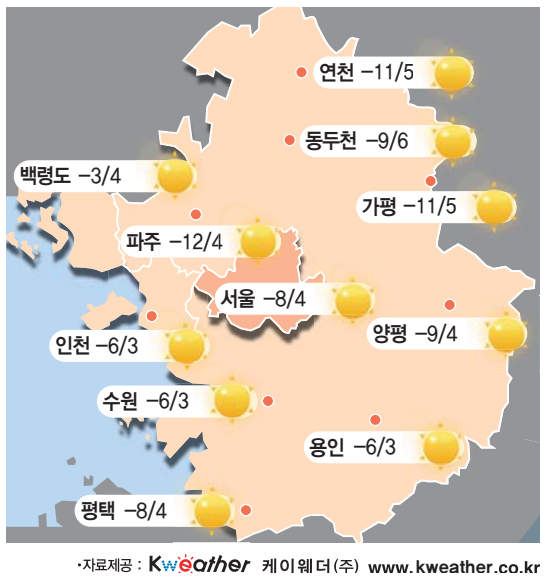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19 | 해짐 / 18:14

2월 18일 (火)
음력 : 1월 25일

수도권 날씨
-8 ~ 4 ℃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문경시 ‘은성갱도’, VR 체험시설 된다

공립박물관 실감 콘텐츠 사업 선정
연장 400㎞에 달하는 지하갱도 체험

경북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내 은성갱도가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한 가상현실 실감콘텐츠 체험시설로 조성된다.

17일 문경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활용 사업’에 문경석탄박물관 은성갱도가 선정돼 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은성갱도는 1995년 폐광한 은성탄광 부지에 마련된 전시공간(길이 230m, 전시 면적 740㎡)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제 갱도를 활용한 시설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관람객들은 신입광부가 돼 선배 광부들의 작업지시를 받아 갱도폭파를 체험하는 등 총 연장 400㎞에 달하는 지하 갱도의 세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문경석탄박물관 은성갱도

문경석탄박물관은 가은오픈세트장, 모노레일, 자이언트포레스트, 에코타운 등의 시설과 함께 ‘문경에코랄라’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문경(경북)=장성우 기자 krhon@

신안군, 자연 친화 영농폐기물 집하장 마련

자연 소재 이용 주변경관 조화

신안군이 ‘한국의 갯벌(신안 갯벌)’ 세계 자연 유산 등재를 위해 행정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자연보전연맹의 ‘한국의 갯벌 (신안 갯벌) 세계 자연유산 등재 최종 패널 회의’를 앞두고 자연 친화형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그동안 유용미생물을 주민에게 보급해 소하천과 갯벌을 살리고, 개인 텀블러 사용 캠페인 전개로 1회 용품을 줄이는 등 ‘청정한 자연환경 지키기’와 ‘천사섬 신안 가꾸기’에 공을 들여왔다.

신안군 자연 친화형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특히 기존 집하장이 철 구조물로 제작돼 있어 해풍에 의한 부식에 취약하고, 인공적이고 경직된 이미지를 주고 있어 자연 소재를 이용해 독특하면서도 사계절 꽃 피는 경관과 어울리는 집하장 시설을 추진 중이다. /전남=안행주 기자 abcd@

상주농기센터-경북 화훼연구소

라넌큘러스 공동연구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경북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와 2020년도 현장실용 공동연구(연구 분야 ‘라넌큘러스 정식 시 지온관리를 위한 피복재 선발)를 수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라넌큘러스는 꽃다발과 장식용으로 인기가 높은 꽃이다.

이번 연구는 라넌큘러스 재배농가 2개소에서 지금까지 쓰던 비닐과 부직포, 타이벡 피복 등을 대상으로 피복재별 특성 평가 및 땅 온도, 습도 변화 조사를 통해 적정 피복재를 찾는 것이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